

채지형 / 여행작가 [www.traveldesigner.co.kr](http://www.traveldesigner.co.kr)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땐

칠레 이스터섬

이스터섬은 어디론가 꼭 숨어 버리고 싶을 때 권할 만한 최고의 여행지다. 그곳에 가면 대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숨어 있는 기분이 든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미 뭔가 비밀스러운 섬에 도착했다는 느낌과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안도감, 그리고 서운함이 함께 밀려든다.



모아이를 만드는 모아이 공장 라노 라라쿠

## 한없이 외로운 이스터섬

스페인어로는 이슬라 데 파스쿠아(Isla de Pascua), 원주민어로는 라파누이(Rapa Nui), 영어로는 이스터 아일랜드(Easter Island)로 불리는 섬. 이스터라는 이름은 1722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로게벤이 이 섬을 발견한 날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스터섬에 가기 위해서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가야한다. 이스터섬은 그곳에서 5시간 30분이나 비행기를 타야 닿을 수 있다.

한없이 외로워 보이는 섬이지만, 막상 그곳의 햇살을 받으면 외로운 섬이라는 느낌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빨간색 꽃을 귀에 꽂은 현지인들이 노란색 꽃 목걸이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맞을 때면, 이곳이 하와이인지 타히티인지 잠시 헷갈린다. 어디선가 알로하' 하며 달려올 것만 같다.

이스터 섬은 차로 2시간 정도면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작그마하다. 모아이와 작은 화산들이 주요 볼거리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

는 항가로아와 모아이 유적, 이스터 섬 박물관은 필수 코스다.

이스터 섬에는 수백 기의 모아이가 있는데, 보통 '아후' 라고 불리는 돌로 쌓은 단 위에 세워져 있다. 각각의 크기가 다른데, 240톤이나 될 정도로 무거운 모아이도 있다.

사흘 정도 이스터섬에 머무를 예정이라면 도착한 첫째 날에는 여유를 부리며 항가로아 마을에 있는 이스터 섬 박물관을 둘러보고, 두 번째 날에는 아우 통가리키, 라노 라라쿠, 아나케나 해변을 차례로 돌면서 모아이를 만나는 게 좋다. 마지막 날에는 오룽고 지역을 돌아본 후 시간이 남는다면 보트 투어나 말타기, 선라이스 투어 등 다양한 투어에 참여해 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 바위 거인들이 간직한 수수께끼 속으로

본격적으로 이스터 섬과 만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한다. 새벽에 가서 인사를 나눠야 할 모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짙은 새벽부터 부산을 떨면서 아후 통가리키(Ahu tongariki)



파도가 세서 서핑하는 이들이 많다



축제를 준비하는 이스터섬의 어린이들

로 향했다. 아후 통가리키에는 모아이 15기가 일렬로 바다를 등지고 서 장엄하게 떠오르는 해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거대한 모아이를 이동했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지만, 왜 그랬는지의 이유보다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더욱 신비로웠다. 서서히 세상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는 모아이들의 모습은 하늘에, 자연에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았다.

통가리키에 있는 모아이 중 하나는 ‘트래블링 모아이’ 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유인 즉 15구 중 유일하게 오사카에서 열린 엑스포에 다녀왔기 때문이란다. 오랜 여행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묘한 동질감이 생겨 ‘트래블링 모아이’ 에게 악수를 청해봤다.

해가 뜨고 난 후 쓸쓸해 보이는 모아이를 뒤로하고 모아이를 만들던 라노 라라쿠(Rano Raraku)로 자리를 옮겼다. 1000년도 훨씬 지난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이곳의 모아이들은 석공들이 마치 잠시 점심을 먹으러 간 듯 작업 중인 채로 남아 있었다. 어떤 모아이들은 화순 운주사의 외불처럼 누워 있었다. 이젠 돌아오지 않을 석공들이기에 이 미완성품들은 끝내 이대로 있어야만 했다.





아나케나 해변



일출과 함께 봐야하는 아후 통가리키



꽃목걸이를 만들고 계신 할머니

해변에 있는 모아이 아나케나(Anakena)를 찾아가는 길에는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 도로도 볼 수 있었다. 크고 작은 기생 화산들은 제주도의 오름을 떠올리게 하고, 차곡차곡 돌담들도 제주도의 그것과 비슷했다. 그리고 보니 이스터 섬은 제주도와 참 많이 닮았다.

와락 그리움이 쏟아졌다. 그저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만 알고 있던 이스터 섬의 외로움이 가슴에 와 닿았다.

‘아,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지?’

이스터는 칠레에서 3780km, 타히티에서 4300km, 가장 가까운 섬에서도 1900km가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약 1만6000km가 떨어져 있는 것.

무한한 해방감이 갑자기 외로움으로 변했다. 이곳에서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까만 불펜, 소박한 엽서 몇 장을 꺼내 놓고 모아이 옆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 ■ <여행정보>

- \* **항공** : 칠레 산티아고에서 5시간 30분 걸린다. 한국에서 칠레 산티아고까지 가는 직항편은 없다. 미국 LA를 경유해 산티아고로 이동해야 한다.
- \* **언어** : 스페인어
- \* **여행 팁** : 섬 내 물가가 무척 비싸다. 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이스터 섬에 대한 정보는 섬의 중심지인 항가로아의 관광 안내소에서 얻을 수 있다. 섬의 남쪽 해안과 동쪽 해안을 도는 1일 투어나 선라이스 투어, 말타기, 보트 투어 등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스터섬